

월드미션 공동체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서영 사서

전세계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는 이 때에 학우님과 학우님의 사랑하는 가정과 교회, 그리고 직장이 건강하고 안전하기를 기도합니다.

학교가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전역에 ‘스태이 앳 홈’ 봉쇄령이 시행된지 벌써 6 주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학우님이 있는 지역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으로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사용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 세계의 학교들은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해서 진행하고 있고 저희 학교도 동일한 상황입니다. 이런 전례없는 상황 가운데, 읽고 있던 구약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살피는 하나님의 모습과 말씀들이 제게 레마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면을 빌려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 잘 아십니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지리적으로 가까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땅이 아니라, 홍해로 가는 사막 길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 장에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바꾸어서 이집트로 되돌아가지나 않을까, 하고 염려해서” 사막쪽으로 돌아가게 했다고 말입니다. 팔레스타인 땅이 가깝다고 거기로 가다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공격을 받게 되면, 노예로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쉽게 이집트땅으로 공격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멀리 돌아가면 쉽게 이집트로 도망가기도 힘들었겠지요. 일단, 머니까요. 당장은 험한 길이지만, 목적지인 가나안땅까지 백성들이 무사히 가려면 차라리 사막쪽으로 가야 가능하다는 것을 아신 것이지요. 또 다른 예로서, 가나안땅에서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시는 부분만 봐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연약함, 사람의 실수를 감안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아시고, 내가 헛점과 실수가 많다는 것도 속속들이 알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그분이 아십니다.

그런데, 요즘 상황이 어떻습니까? 인적이 끊긴 바닷가에 먼 바다로 가버렸던 프랑크톤이 돌아오고, 멸종위기에 있던 바닷거북이 돌아와 알을 낳고 있다고 합니다. 공장 가동이 중단되고, 자동차 운행이 줄어들면서 대도시의 공기가 좋아지고 하늘도 쾌청해졌다고 합니다. 4월 22일은 지구의 날이었습니다. 청명해진 도시 하늘에 펼쳐지는 'Happy Earth Day' 플랫카드는 이 지구가 지구인들에게 보낸 감사카드처럼 보였습니다. 레위기 25장에는 희년이라는 제도가 나옵니다. 7년째에는 땅이 쉬어야 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 6일 열심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일하지 말고 쉬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았죠. 사람들은 당장 먹고 살기 힘들어 한시도 쉴 수 없었습니다. 이 땅도 혹사당하기는 마찬가지였죠. 이렇게 모두 폭주 기관차처럼 살아가는 어느 순간 모든 것이 섰다운되었습니다. 모두 강제로 쉬고 있습니다. 지구 구석구석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는데, 산과 바다에도 빗장이 걸렸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도 지구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희년이 선포된 것처럼 보이는 이유입니다. **당장은 고통스럽지만, 건강한 지구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잠깐 쉬어 가야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스로 쉬지 못하고, 방향을 틀지 못하는 나의 한계 상황에서, 내가 쉬면서 그분을 홀로 만나는 시간을 갖기 원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당장 쉬어서 불안하시죠? 모든게 막힌 것처럼 답답하시죠? 이러다가 계속 쉬게 되는 것은 아닐까? 살아갈 기본 소득은 어떻하나? 사방이 막막하여, 위를 쳐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래로 고개를 떨구지 마십시오. 반드시 고개를 젓히고 위를 보셔야 합니다. 그럼, 하늘이 보이실 겁니다. 거의 몇 십년만에 겨우 회복되어 살아난 맑고 청명한 하늘이.... 그렇게 하늘을 살리신 하나님이 학우님을 살리실 것입니다.

